

목장교회 나눔지

2019. 5. 17.주간

목 목장원들을 환영_얼음깨기(Ice-breaking)(10분)

· 내인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나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야기 해 봅시다.

장 장마비와 같은 찬양과 경배(5분)

찬
송
가
4
2
0
장

1.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2. 너 성결기 위해 네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네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니 널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3.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4.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네 소원을 주께 다 말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섬기리

찬
송
가
5
5
9
장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교 교재를 통한 삶의 나눔_말씀(40분)

출애굽기 5장 1-9절

하나님을 예배하라

A.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B. 성경말씀을 깊이 읽어봅시다.

1.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6.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줌게 하라 8.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C. 말씀 요약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말이다. 흔히 생각할 때, 설교 듣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설교는 중요한 순서 중 하나이지, 예배 자체가 아니다. 예배란 입례부터 축도까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움받아야 한다.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현대인은 예배가 너무 많다고 여긴다. 주일오전/오후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새벽기도, 부흥회 등등 잦은 예배가 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예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를 말씀하시고 채우신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지 말라.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는 모습을 살펴본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을까? 이미 400년이나 살아서 거쳐가 있고, 자녀가 있고, 터전이 있는데 말이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 고통을 없애주실 수(노예생활) 있는 것이 아닌가?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성도들은 흔히 교회를 다녀라고 이야기를 한다. 교회를 다닌다는 말에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함축된 표현이다. 교회를 사회봉사하러 다니지는 않는 것 아닌가? 교회의 중심은 예배이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5장 1절(왼쪽면)에는 하나님이 내 백성과 예배로 만나기 위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의도를 충분히 드러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 것이요, 소유라고 하시는 장면이다.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다. 그들과 나는 예배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볼 때, 삶의 터전이 있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어떻게 상황을 바꿔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애굽에서 특별한 관계,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광야를 가로질러 간다는 것인가?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견뎌낼 수가 없는 곳이 아닌가? 왜 그 곳까지 가서 예배한다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오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의 회복 즉 예배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잘못된 편견과

설교내용

같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땅을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다. 출애굽을 인도 하심은 민족에게 땅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예배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에 정착하여 그 땅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시려는 것에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서 예배가 회복된 것이고, 예배가 끊긴 어느 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난 일을 알 게 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왜 교회를 주셨는가, 왜 부요를 주셨 는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를 다녀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땅을 주시려고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척박한 땅 낫 선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사명을 주신 것이 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인가? 예배가운데 경험하는 것이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임 재하시고 함께하실 때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어, 이 땅을 치 유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예배로 우리는 하나 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몰아내고 치유하신다.

4절에서 바로는 말한다. 노역이나 해라. 바로는 핀잔을 준다. 예배가 뭐 쓸도 있냐? 바로는 예배하면 밥 주냐 떡 주냐 비하하는 사람의 말과 같다. 흔하들 먹고 살기 바빠서 예배를 빠지 는 일을 익숙하게 여긴다. “다음에 예배 해도 돼.”라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는가? 하지만 예배에 중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죽음과 어둠에 빠 져 피할 길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은혜와 감격을 놓치고 사 는 사람이 어떻게 소망이 있었는가? 절망뿐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걸어야 한다. 예배를 기본으로 드리지 말자. 기본이 좋을 때 드리고, 안 좋을 때 안 드리는 것. 상황과 시간이 될 때 드리는 것, 이것은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다. 오 직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에 거룩한 감격으로 드리도록 하자. 이런 마음으로 달려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신다. 다시 확증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 이 아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기본 좋아, 시간 있어서 예배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복 을 주신다.

성경을 보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 그 결과 어떤가? 복된 삶, 부한 삶을 살지 않는가? 라이프 싸이클을 예배 중심으로 맞춰야만 한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 나님이 복주시기 때문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예배의 목 상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일주일의 시간을 오직 예배에 맞추어 가장 중요한 예배에 맞추라. 부름 받은 인생의 사 이클, 컨디션, 스케줄, 기본 모두를 예배에 맞추도록 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마당만 밟는 경우가 많다. 이사야 1:12는 마당만 밟을 뿐이 라고 하신다. 또 13절에는 헛된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하셨다.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자의 회복 을 누려야 한다. 악을 누리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거룩함으로 나아간다.

결론이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쫓겨난다. 심방은 문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 다. 상담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상담은 상담가가 더 잘 한다. 상담이 아니라, 심방은 하나님께 서 이 가정에 다스리시도록 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은 복 받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 해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심방에 임하도록 하라. 또 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

졌을 때 말이 많았고, 의심이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에도 불구 하고 역사를 이루셨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가 있다.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할 지를 알게 하신다. 육신의 기운을 얻 는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그렇게 된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라. 주일을 복되게 하라. 수요, 금요 예배를 회복하라.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바란다. 염려와 근심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D. 적어봅시다.

1)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자로의 세움’에 있다.

-
-

2)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

-
-

3) 예배를 통해 하늘 문을 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
-

회 회원들을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15분)

- 불맞이 대심방을 위하여
- 육신과 영적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 교회사역을 위하여: 중보기도, 말씀 묵상, 통독학교, 일대일제자훈련 등.
- 담임목사님을 위하여: 말씀의 기름부으심과 성령 충만을 위하여.

모 모든 목장원이 사역에 참여(10분)

[교회 광고]

- ① 큐티 동역자 100명 세우기 II 올 한 해 100명의 큐티동역자를 세워가기 원합 니다. 모든 목장에서는 큐티를 구입하여 나누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불맞이대심방 II 모든 목장이 힘써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 ③ 전교인소풍 II 6/2에 모두 함께 참여해주시고, 목장별 식사가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목장별로 식사를 준비해주시고, 당일만은 특별 목장 편성(편성되 지 않는 이, 장결자 등)이 있사오니 목장원 외에 당일 편성될 인원을 고려해서 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마무리(5분) - 주기도문

[목장별 사역메모]